

#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 제 20 장

[ 제1 권 마지막 장 : 부활 ]



라자루스는 날아가는 동안 초록빛으로 빛나는 메디치 경의 유령을 뒤쫓았다.

침엽수림으로 뒤덮인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생 막심 항구 마을을 향해 나아갔다. 오른쪽으로 수많은 만과 반도가 있는 어둡고 불규칙한 해안선이 보였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의 눈에는 해안선이 마치 튀어 오르는 흐릿한 형체처럼 보였다. 그리고 움직이는 와중에도 왼쪽으로는 드넓은 바다와 붉은 수평선이 마치 정지해 있는 듯한 풍경으로 보였다. 하지만 라자로는 새벽의 가느다란 붉은 선에서 미묘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를 감지했다. 그 짙어지는 빛과 솟아오르는 열기는 마치 맹렬하고 불타는 용이 급히 솟아올라 치명적인 빛으로 지구를 불태우려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날개짓 소리 아래 시간은 흘러갔고, 엘조호의 심장이 뛰는 속도는 찰나의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라자로는 계속 날아갔고, 동쪽 구름의 가장자리는 마치 하늘의 뒷면에 묻은 거대한 핏자국들을 모아놓은 듯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메디치의 뒤를 따라 속도를 두 배로 높였지만, 유령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의도적이고 끊임없는 서두름. 바다 쪽 지평선에서 가느다란 선들이 뻗어 나와 희미한 하늘을 가로지르며 마치 시작을 연상시키는 듯했다. 거대하고 불타는 거미줄 같았다. 거대한 일출 줄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마침내 펼쳐진 이 장엄한 새벽의 광경은 멀리서 보면 나사로의 실루엣이 거대한 화산의 불빛을 배경으로 한 나방의 그림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나사로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고, 마침내 공황 상태에 빠져 "메디치 가문이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다.

"조금만 더 해, 라자루스!"

"아니요, 저는 내륙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바로 저기야!" 메디치는 앞으로 길게 뻗은 반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거의 다 왔어! 서두르자!"

나사로는 이를 악물고 어깨를 굳게 한 후 바람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앞으로 돌진했다. 새로운 속도로 그는 몸을 낮춰 해수면을 스치듯 날며 메디치의 발뒤꿈치를 꼭 붙잡았다. 둘은 함께 바위투성이 곳을 돌아 급선회했다. 라자루스가 절벽에 사는 새 떼를 흠여지게 하자 깃털이 바다 위로 흩날렸다. 놀란 새들의 날개를 찢고 돌투성이의 좁은 지협을 뒤덮은 새들은 내륙으로 더 들어가 얇고 푸르스름한 만으로 향했다. 만 안에는 작고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는 섬들이 가득했는데, 마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 흉터투성이의 앙상한 바위들이 침탑처럼 쌓여 있었다. 그 섬들은 마치 바닷물에 그을린 회색 모비처럼, 넓은 초록빛 바다 한가운데 솟아 있었다.

"저기 있어요!" 메디치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송곳니처럼 보이는 두 개의 섬을 가리켰다. 그 섬들은 마치 앞니까지 완벽하게 갖춘 채 나란히 서 있었다. 바위투성이의 섬들 사이에는 더 어두운 바닷물이 좁은 틈을 이루고 있었다. 라자루스가 그 두 섬 사이의 바다에 가까워지자, 그는 뚜렷하고 마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작은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그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그 구조물의 윤곽이 점차 드러났다.

"어떻게 생각해?" 메디치는 라자로 옆에 쓰러지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적당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맞지?" 바위 그림자 속에서 라자로는 선미는 가라앉고 선수는 솟아오른 채 기울어진 톱니바퀴선의 잔해를 살폈다.

물 위에 비스듬히 서 있는 배의 모습 때문에, 마치 파도에 막히지만 앉았다면 북쪽 하늘로 곧장 항해하려던 것처럼 보였다. 라자루스는 비뚤어진 잔해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속도를 늦췄다.

얼룩진 선체 판자는 한때 수평이었던 수면을 드러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다.

빠죽 튀어나온 뱃머리 아랫부분에는 하얗게 바랜 따개비들이 잔뜩 붙어 있어, 뒤집히고 부서진 배는 마치 뼈만 남은 하얀 수염을 기른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배가 완전히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만 남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들이 더 있었다. 라자로는 해조류로 뒤덮인 갑판을 가로지르는 굵은 삼줄들을 발견했는데, 그 밧줄들은 여전히 배의 여러 곳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또 다른 밧줄들은 부분적으로만 고정되어 끝부분이 선미 위로 늘어져 어두운 물속에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음산한 파도가 규칙적으로 출렁이며 낡은 밧줄들을 흔들며 마치 일제히 일렬로 서서 춤추는 뱀들처럼 보이게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배는 상당히 커 보였을지 모르지만, 장거리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내항성 설계가 아니라 오히려 모형에 가까웠습니다.

지방 해안 항구 사이의 고요한 해안선을 극복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낡은 상태의 그 배에는 뜻도 뜻대도 없었고, 선미 갑판의 잔해가 주 갑판 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해초로 뒤덮인 플랫폼과 부서진 난간벽 곳곳에는 갈매기들이 뜯어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마른 생선 사체들이 흩어져 있었다.

메디치는 배에 올라탔고, 라자루스는 선체에 구멍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배 주위를 다시 돌았다. 배가 멀쩡해 보이자 라자루스는 메디치와 함께 갑판으로 나갔다.

그의 몸무게 때문에 널빤지가 삐걱거렸다. 메디치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소리 없이 배의 화물칸을 향해 걸어갔다. "이쪽이야." 그는 안으로 사라지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다.

라자로는 가볍게 그의 뒤를 따라 걸었고, 그의 발걸음마다 갑판 널빤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는 비행으로 숨이 찬 채 투덜거렸다. "안전한 거야?" 그는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 이마의 땀 부분만 쓰다듬었다.

"하루 정도는 머물기에 충분히 안전해." 메디치가 배 아래층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배의 화물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배 속은 밤처럼 새까맣지. 네 병에 딱 맞을 거야, 이 자식아."

"모여라." 갑판을 두드리고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나무에 손가락 마디를 부딪치는 소리 같았다. 그때 메디치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이 배는 침몰한 상태를 감안하면 선체는 꽤 튼튼하군. 이 섬들이 여러 차례의 폭풍우를 막아준 덕분인 것 같아. 그리고 배가 약간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라자로? 왜 갑판 위에 남아 있는 거지?"

섬의 그림자가 드리운 장막 속에서 라자로는 배의 어두컴컴한 내부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드러난 바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 모든 순간 동안,

그는 "나는 날개 없는 유령 메디치처럼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니, 때때로 숨을 헐떡여야 한다"고 불평했다.

스펙터는 껄껄 웃었다. "라자루스, 넌 정말 성급하게 날아오르는군. 전혀 짐작도 못 했어."

라자루스는 발굽을 배 밑바닥에 쿵 하고 디디고는 몸을 돌려 팔짱을 꼈다.

그는 메디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햇볕에 죽을 뻔했고, 머리로 새를 쳤고, 바다에 추락할 뻔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웃어야 하나?"

메디치는 코웃음을 치며 웃음을 멈추고는 라자루스의 머리카락에 박힌 갈매기 깃털 몇 개를 뽑아냈다. "미안해, 라자루스. 네가 새에 부딪히는 건 처음 보는데. 다친 데는 없나?"

“새보다는 낫지.” 나사로는 이마에 난 붉은 혹을 다시 살펴보며 대답했다.

“라자루스, 당신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치는 라자루스 곁으로 다가가 그의 이마를 살폈다. “아마도 200년 만에 당신과 함께하게 되면서 제 고통이 새롭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제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 말입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저도 불쌍한 제 아내 소피아와 함께 죽게 될 테니까요.” 메디치는 목을 가다듬고 두 손을 모아 엄숙하게 맹세했다. “라자루스, 당신을 결코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나사로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유령이 두 팔 벌려 나사로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자네는 이마에 작은 혹 하나만 났을 뿐, 햇볕으로부터는 완전히 안전한 곳에서 있군, 그렇지?"

라자루스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코끝에는 축축하고 짠 공기가 감돌았는데, 해조류, 생선, 썩은 나무, 그리고 옷에 묻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다행히 옷에는 어부 특유의 악취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어두컴컴하고 바닷물에 식은 선창 안에서 차가워진 날개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크게 부풀어 오르자 배 내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메디치의 말이 맞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배의 속이 텅 빈 구조는 갈비뼈와 선체가 단단하게 밀봉된 듯 견고해 보였다. 유령은 껄껄 웃었다. 발의 각도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바닥을 살펴보니 가장 안쪽 판자는 선창 뒤쪽 전체를 뒤덮은 고인 검은 물웅덩이 아래로 사라져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선창 앞쪽의 좁은 바닥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물이 전혀 없었다. 그는 선창 입구를 통해 머리 위를 올려다보며 흰하늘과 그 위에 드러난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메디치에게 몸을 돌려 하늘을 가리켰다.

"불행히도 해는 떠오르고, 가장 밝게 빛날 때 이 어둠을 태워 없앨 것이며, 나 또한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라자루스가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메디치가 달려와 그를 막았다.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시오." 유령은 비웃으며 의사 특유의 수수께끼 같고 운율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지혜를 속삭였다. "모든 질병이 결국 치료를 통해 소멸 하듯이, 우리도 불행을 함부로 대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소."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흠어진 나무 조각 몇 개만으로도 가장 밝은 낮이 가장 어두운 밤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그는 껄껄 웃으며 갑판 위로 사라졌다.

라자루스는 위에서 메디치가 급히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메디치는 무너진 갑판의 조각들을 새로 가져와 구멍을 덮었다. 마지막 나무 조각이 하늘의 흔적마저 완전히 가리자, 메디치는 아래로 내려와 라자루스 옆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어두운 이면을 음미했다. "칠흑같이 어둡군. 자네 뜻대로 됐네. 어떻게 생각하나?"

라자루스는 지친 듯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몸을 돌려 경 사진 바닥을 기어올라 선창 앞쪽으로 향했고, 높이 드러나 있는 마른 판자들 위로 올라갔다.

뱃머리 근처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배를 바닥에 대고 털썩 주저앉아 나른하게 날개를 재정비했다. 이 어지는 어둠 속 고통의 파도 소리와 뼈격거리는 선체 소리에 거의 잠이 들 뻔했을 때, 그는 갑자기 숨을 들이쉬며 몸을 움직였다. "메디치 씨?"

“네, 라자루스 씨?”

“지칠 때가 있나요?”

메디치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당신이 짐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그렇죠?”

유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멈췄다. "아마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깊은 상실을 겪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을 만큼 무거운 슬픔에 잠겼던 순간을 떠올려보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훌륭하군.” 메디치가 말했다. “자, 이제 슬픔을 그 순간에서 떼어내어, 의지의 부재만이 남도록 해 보아 보시오. 그러면 그 외로움만으로도 영혼이 지칠 때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을 것이요.”

“메디치?”

"예?"

"영원히 날 수 있나요? 지치지 않고요?"

"난 시도해 본 적 없어. 그리고 저 날아다니는 천사 염소가 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리고 있는데, 감히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순 없지."

“아자젤?”

"맞습니다. 아자젤과 아즈라엘이 영원히 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해도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누비며 위아래로 오르내리고, 저처럼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말입니다."

위아래로요?

유령은 껄껄 웃었다. "오랜 세월 동안 천사들의 섭리를 조금 배웠지."

죽었다. 어쨌든, 내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세상을 누비는 동안에도 그들은 아직 나를 붙잡지 못했다. 나는 수백 명의 천사들을 보았는데, 모두 영과 그림자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그 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방황하는 영혼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영혼들을 찾는다는 거군요.” 라자로가 말했다. 정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즈라엘 에게서 들은 바로는, 영혼을 찾는 자는 오직 둘뿐이요. 아즈라엘 과 아자 젤 말이요." "그들을 좀 더 쉽게 묘사할 수도 있겠소." 그는 턱을 쓰다듬 으며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둘은 창조자의 대저택의 신성한 하인과 같소.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수거하여 대저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들이요." 메디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어디에서 덮에 걸리게 하려는지 알고 있기에 그곳에 없소. 내 아내 소피아의 무덤은 아즈라엘이 발꿈치에 매달린 뱀처럼 기다리고 있는 곳 중 하나요. 하지만 그녀는 나를 잡는 것만큼이나 재빨리 도망치 게 해 주오. 마치 계절마다 하는 놀이 같소. 나는 그녀와 함께 가려는 척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나를 놓아주오. 진실로, 나사로여, 나는 종종 내가 이 땅을 떠도는 가장 오래된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소." 메디치는 나무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명하고 날개 달린 나의 종자여,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신께서 저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나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확신해. 마치 누군가가 바닥에 훑날리는 쓰레기나 엉킨 머리카락을 보 는 것처럼 쉽게 나를 보고 계시지.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자로는 코를 한 번 킁킁거린 후 곧바로 고르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

태양은 높이 솟아올라 쌍둥이 섬 위로 드리워졌고, 좌초된 유령선을 한낮의 햇살로 비추며 전날 밤 새로 자란 해조류를 갈색으로 물들였다. 갈매기들이 갑판 위에 모여들어 아가미로 숨 쉬는 물고기의 살점을 뜯 어 먹었다. 그렇게 또 하루 동안 잡은 물고기 눈알들이 작열하는 하늘 아래 말라갔다. 하지만 태양 은 단 한 번도 배의 선실을 침범하지 않았다. 라자로의 시원하고 그늘진 배의 자궁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 었다.

정오가 지나 오후가 되자 서쪽 섬의 그림자가 배 위로 서서히 드리워졌다. 어둠이 깔리고 바람이 잦아들고 조류가 바뀌자 갈매기들은 다시 배를 버리고 육지로 향했고, 저녁이 걸히면서 또 하루가 저물어갔다.  
갓 말린 눈이 동그란 생선.

커다란 오렌지빛 달이 동쪽 바다 위로 떠올라 시원한 빛을 바다 위에 비추었다. 마치 새벽녘 첫 햇 살에 깨어나는 수탉처럼, 나사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점점 어두워지는 밤의 후반부 색조.

“꼭 잤군요.” 메디치의 목소리가 선실 안으로 울려 퍼졌다.

나사로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신음하며 눈을 비볐다.

그는 마룻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뺨을 어루만졌다. 그때 그는 선미 부근에서 메디치를 발견했다. 메디치는 두 손으로 조끼의 마주 보는 솔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위엄 있는 표정이었지만, 무릎까지 물에 잠겨 있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메디치는 인사를 건네고는 잔물결 하나 없는 물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와 그에게 다가갔다. “폭 쉬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폭 잤다니 기쁘군.” 메디치가 불평했다. “당신은 코골이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잖아.”

“용서해 주십시오, 메디치 가문. 제가 혹시 ”

메디치는 특히 잠자는 유령이라는 발상에 크게 웃었다.

라자루스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메디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지금 웃어야 한다는 말인가?”

창백해진 메디치 가문의 남자는 걸음을 멈췄고, 그의 즐거운 표정은 사라졌다. 라자로는 놀란 유령의 모습을 보고 꺾꺾 웃었다.

“정말 속았군.” 메디치는 라자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인정했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라자루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메디치는 라자루스 앞에 멈춰 서서 반갑게 인사했다. “에덴의 보석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의 보석이죠?”

“에덴.” 메디치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는 라자루스의 어깨 너머 뺨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배 이름이지. 자고 있는 동안 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지금 배의 상태를 보니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더군.”

“어떻게 그렇죠?”

메디치는 두 손을 등 뒤로 깎지 끼고 발뒤꿈치를 뒤로 젖힌 채 씩 웃었다. “내가 말해줄게, 라자루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 주위를 빙빙 돌며 자신의 관찰 결과를 설명했다. “내 생각에 그 배는 천 조각과 옷감을 싣고 물 위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가 좌초된 것 같군. 너덜 너덜해진 화물 대부분은 지금 바위투성이 해저에 놓여 있는데, 아마도 선원들이 짐을 가볍게 하려고 버린 것 같아. 게다가 다른 배로 배를 뒤로 끌어당겨 바위에서 떼어내려고 했던 흔적도 보이지.” 메디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을 굴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군. 배는 여전히 단단히 박혀 있으니까.”

나는 그녀의 수많은 밧줄 묶음에서 그러한 노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밧줄들은 여전히 갑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끊어진 끝부분들은 선미에 고르게 걸쳐져 있었다.

물론 신의 손길이 없다면, 더 큰 배만이 더 작은 배를 끌 수 있는 법이죠.”

메디치는 걸음을 멈추고 라자루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대담함과

성급한 선장은 거센 바람과 돛을 활짝 펼친 채 얇은 바다를 질주하며 마주 보고 있는 이 섬들 사이로 항로를 잡았다. 유혹이나 대가가 어땠든 간에 그 섬들을 피해서 항해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쨌든, 한때 보석과 같았던 배는 이제 모두에게 버려지고 잊혀진 채 이곳에 누워 최후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새와 물고기는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 승객일 겁니다. 그녀의 침몰한 화물.”

“당신은 세부 사항을 예리하게 파악하는군요.” 라자루스가 대답했다.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글쎄요, 그건 순전히 관찰을 통해서일 뿐이죠. 물론 제가 모든 걸 잘못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쎄요.” 라자루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작은 징후에서 가장 큰 진실을 찾아내는 것 같군요.”

메디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말씀 감사합니다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의 은총뿐입니다.” 그는 머리 위를 가리켰다.

“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저녁잠에 빠진 세상을 깨워 볼까요?”

“아, 그렇군요.” 라자루스가 대답했다. 그는 몸을 돌려 수직으로 세워진 상자를 기어오르며 겹겹이 쌓인 물건들을 밀었다. 널빤지를 옆으로 치우자 맑고 밝은 하늘이 드러났다. 마치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땅다람쥐처럼, 라자루스는 달빛이 비치는 갑판 위로 시선을 살짝 들어 올려 그 표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단단한 갑판을 뚫고 솟아오르는 유령의 급히 올라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자, 어서 나오시오. 오늘 밤은 당신의 것입니다.” 메디치는 라자로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라자루스는 유령선을 노려본 후 선창에서 기어 나왔다. 그는 해초로 뒤덮인 갑판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말라붙은 생선 조각들, 부서지고 splintered된 나무 조각들, 그리고 이리저리 얽혀 있는 밧줄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위아래로, 배 전체에 걸쳐 아래로 내려앉는다.

메디치는 하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나사로는 조심스럽게 배의 솟아오른 앞쪽으로 걸어갔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 따뜻하고 꾸준한 바람에 그의 옷자락이 펄럭였다. 그는 뱃머리 근처에 멈춰 서서 용골을 살펴보았다. 용골에는 여자의 나체 뒷모습이 부분적으로 조각되어 있었는데, 허리 부분에서 부서져 나간 상태였다. “보석이군.” 나사로는 중얼거리며 갑판을 둘러보며 상반신의 흔적을 찾았지만, 부서진 나무 조각과 흩어진 밧줄만 발견할 뿐이었다. 그는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려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을 빗어 넘겨 머리 위로 넘겼다. 앞쪽 갑판의 새로운 위치에서, 바다 쪽 섬의 북쪽 아래쪽을 바라보니, 떠오르는 찬란한 달이 보였다. 붉고 흐릿한 후광이 주황색 달을 둘러싸고 있어, 그 천체는 마치 유령처럼 불길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나사로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눈앞에 펼쳐진 넓고 칙칙 같은 심연을 마주하며 머뭇거렸다. 마침내 그는 물었다. "바다는 얼마나 깊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엘조는 돌아서서 유령이 외적인 문제에 몰두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메디치는 라자루스에게 등을 돌린 채 남동쪽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는 V자 모양으로 뻗은 두 손가락 사이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 중심을 정확히 맞췄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모아 옆으로 돌리고 팔을 내려 두 손가락이 별을 가리키도록 했다.

손가락이 수평선과 나란히 뻗었다. 그리고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그는 멀리 떨어진 코르시카 섬의 정확한 방향을 알아냈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겠지."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칙칙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메디치?"

유령은 마치 물속에 잠겼다가 갑자기 놀란 거장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예상치 못하게 비범하고 추상적인 추론의 세계에서 튕겨져 나온 듯했다. "아, 흠—네, 라자루스 씨?"

"바다의 진짜 깊이를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디치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사로, 그것은 정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신발 높이만큼이나 알고, 또 어떤 부분은 구름 높이만큼이나 알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말을 멈추고 설명했다.

"바다의 지형은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깊은 계곡이 있는 육지의 지형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의 물이 파도처럼 흐르는 것은 지구의 에테르가 바람처럼 부는 것과 같습니다."

라자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훑어보았다. 새로운 빛으로 바다의 깊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확인을 구했다. "구름 높이만큼 깊다는 말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까지요. 저는 그 가장 먼 곳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메디치는 한숨을 쉬고 팔짱을 낀 채 발뒤꿈치로 몸을 흔들었다. "이건 내가 아는 사실이지. 세상이 내게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육신 없는 세월 동안 나는 지구 곳곳을 누비고 다녔어. 높은 곳도, 낮은 곳도 가리지 않고 모든 지형을 누볐지. 가장 높은 구름과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가장 낮은 바다와 땅속 가장 깊은 물까지, 지옥의 위치를 찾아 헤맸어. 정말이지, 바다는 광활하고, 다양하고, 깊어."

마치 그들만의 어둡고 음울한 세계처럼 보인다."

라자루스는 갑판 가장자리를 내려다본 후 메디치에게 돌아섰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는군."

"맞습니다." 메디치는 두 손으로 예복 솔기를 움켜쥐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마치 위풍당당한 정치가처럼 위엄 있는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물이 평범하고, 위협적이지 않고, 심지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흔한 돌멩이 하나라도 뒤집어 보면 종종 그 아래 숨겨진 수많은 신비로운 면모와 숨겨진 작동 방식이 드러나는데, 대부분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죠." 그는 마치 옛듣는 귀나 몰래 엿보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려는 듯 배 갑판을 살살이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씩 웃으며 속삭였다. "연금술사 시절, 나는 말하자면 뒤집히지 않은 돌멩이들을 많이 뒤집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경이로운 미지의 것들을 파헤치고 싶었던 거죠. 교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 연구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씩씩하게 웃었다.

“왜 당신의 작품을 숨겼습니까?” 라자로가 물었다.

실망감을 과장되게 표현하며 메디치는 씩씩거리며 이제는 생명력을 잃은 말을 떨어뜨렸다. 그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시골 사람들의 방식이지. 특히 밤의 희미한 그림자 에도 겁을 먹거나, 자기 그림자를 악마나 마귀로 보고 영혼을 훔치려고 몰래 따라다닌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때 그런 교회에서 조장한 허튼소리가 만연한 마을에 살았었지. 당시 연금술사였던 나는 고대인들의 영약 과 죽음의 고통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었기에, 내 연구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극비로 유지해야 했어."

"하지만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비밀로 해야 하는 거죠?"

"왜냐고요?" 메디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껄껄 웃으며 물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공동체에 공포를 불러일으켜 결국 교회 공의회 앞에 서서 이단과 마녀 혐의로 고발당하는 신세가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면 시장 광장으로 끌려가 타르 세례를 받고 불에 타 죽어, 마을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햇불을 상징하는 본보기가 될 테니까."

라자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끔찍한 이미지들을 응시했다.

메디치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라자루스, 자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정식으로 임명된 감독관 없이 연금술이나 관상학, 혹은 그와 유사한 분야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산 채로 화형에 처하곤 한다."

"그런 화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자루스는 지하 묘지에 갇힌 죄수의 운명을 생각하며 말했다. "뼈만 남을 때까지 불에 타 죽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재와 먼지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메디치는 약간 혐오감을 드러내며 단언했다. "그들은 복종하는 바보들을 교황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마지막 해외 항해를 떠나기 전 해에는 매달 초승달이 뜰 때 마다 마을 광장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의회에서 고발당한 자들의 시체가 불타오르는 모습이었죠. 그 의식적인 화형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져서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모여 은밀히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고, 비록 다른 사람들만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대량 학살에 대한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마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몹시 화가 났고, 제 아내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년을 알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 소년은 교회 평의회에 의해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자로가 물었다.

"우리가 아는 한,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메디치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했고, 어쩌면 외모도 특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활발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였죠. 생각이 딴 데로 새기도 하고, 말을 너무 장황하게, 너무 급하게 해서 원래 의도했던 바를 채 끝내기도 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또래의 다른 말쑥꾸러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스테판이었고, 소피아를 통해 저는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인 마그달레나, 둘 다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치는 배 가장자리로 다가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는 해안가 섬의 앙상한 바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메디치는 나사로에게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스테판의 부모는 선량하고 신앙심 깊으며 효성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귀족 가문이었지만, 연이어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상당한 투자를 하고 좀 더,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더 신중한 생활방식을 갖게 되었죠." 메디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알던 귀족 지인들이 점점 더 만나기 어려워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었죠. 소피아와 막달레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매처럼 지냈으니까요. 부자들 가난하든, 그 외 어떤 신분이든 간에, 신과 악마가 한통속이라도 그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소피아가 종종 제 지갑을 들고 시내 상점에 가서 함께 사치스러운 쇼핑을 즐기는데, 막달레나에게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피아는 막달레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지만, 저는 제 지갑이 더 소중했습니다. 결국 제 규율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제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에, 소피아는 여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그달레나와 스테판은 제가 쉽게 줄 수 없었던 만큼 소피아에게 아낌없는 관심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이로웠습니다.

유령은 몸을 돌려 라자로에게 다가갔다. "어쨌든 스테판은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 다만 어머니의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노를란더 억양만 빼면 말이죠. 머리카락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밝은 색이었는데, 거의 흰색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피부는 저보다 훨씬 더 창백했죠."

소피아의 고운 피부조차도 그의 푸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광채는 마치 불꽃 앞에 놓인 푸른 수정처럼 기묘한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섬뜩한 시선과 같았습니다, 라자루스. 하지만 그에게는 겉모습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스테판은 어린 나이에 비해 매우 영리하고 교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의미에서, 어쩌면 그의 영혼 깊숙이까지, 저는 그의 존재 자체가 끔찍한 저주를 짊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진정으로, 나는 그의 행동을 잠시 지켜보면서 완전히 당황스럽고 경외감을 느꼈다. 그 소년은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잃을 만한 순간에도 불안하고 특이한 방향 감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성과 성찰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해 온 사람으로서 이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 그가 계속해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했다. 스테판이 그 기묘한 재능을 드러낼 때마다 나는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마치 내 안의 두 상반된 부분이 서로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하며 나 자신 안에서 갈라지고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찢어지는 듯한 느낌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내 생각은 마치 내 안의 반대되고 서로 싸우는 끝부분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등거리의 공간에 자리 잡는 듯했다. 메디치는 마치 열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는 별들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새롭게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이성과 감정의 반항적인 외침을 제외하고는, 마치 멀리서 스테판의 행동을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제 감각을 반감지만 성가신 무감각의 상태로 몰아넣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리고 라자루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스테판은 무슨 짓을 했지?” 라자루스가 물었다.

"음," 메디치는 숨을 고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스테판은 가끔씩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빙빙 돌곤 했습니다. 발작은 종종 오래 지속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꽤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스테판은 팔을 벌리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거나 손뼉을 치거나 직접 만져도 그의 주의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스테판의 얼굴을 손으로 덮어주면 그는 그 아래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팔을 막거나 회전을 방해하려고 하면, 스테판은 빙빙 돌 수 있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순간에는 그는..."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이 그를 덮어 그의 감각을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킨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이상하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상태에서 그는

그저 빙글빙글 돌고 또 돌고 또 돌 뿐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만큼은 그저 빙글빙글 도는 것만으로도 넋을 잃을 뻔했다.

그가 물레질하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아찔해져서, 서 있지도 않은데 발을 헛디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레나와 소피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이가 자주 물레질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못 본 척했습니다.” 메디치는 라자로를 향해 손가락을 저었다. “만약 그 아이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 물레질을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물레질하는 스테판’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암시하거나 언급한다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두 배의 분노를 사게 될 거야. 그 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나를 모함했지.”

라자루스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비웃으며 돌아서서 입가에 웃음을 뿜어냈다.

코.

“웃어야 한다는 말인가?” 메디치는 거만한 태도로 물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특히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수 많은 귀중한 그릇과 받침대가 널려 있고, 저택 홀의 모든 벽면에 섬세한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쉽게 무시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메디치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비밀을 나누려는 듯 라자루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스테판이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들은 다른 곳에 있어서 나와 아이만 남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지.” 그는 곧 이어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듯 턱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느 날 스테판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입구 바로 아래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펼친 팔이 돌기둥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소년과 돌기둥 옆에 촛대와 의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조명 아래서 소년의 손가락과 돌기둥 사이의 아주 미세한 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았고, 저는 소년이 회전할 때마다 만들어내는 그 짧은 틈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년의 손가락이 돌기둥에 닿거나 멀어지는 아주 미세한 공간 변화라도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손가락이 스치는 동안 그 공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테판은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완벽하게 회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후, 메디치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때 저는 와인 에 취해 약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여자들이 돌아와 제가 스테판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쯤에는 술에 취해 있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령은 고개를 숙이고 슬픈 기억에 잠겨 얼굴 옆을 문지르며 말을 이었다. “여자들이 나를 저택에서 쫓아냈고, 내 의자와 와인병을 밖으로 내던졌으며, 나무 사이의 간격을 재보라고 했지.”

라자로는 껄껄 웃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다. “교회는 스테판의 발작에 대해 어떻게 했나요?”

“아, 스테판이 발작을 일으켜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스테판은 빙글빙글 돌 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처치는 스테판이 입을 열 때마다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정말 말솜씨 가 뛰어났다. 그런 면에서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불손하거나 저속한 말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공손하고 말을 잘했으며, 가장 신랄한 말을 할 때조차도 상냥함을 드러냈다. 스테판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린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그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잠시 말을 멈춰야 할 때도 있었다. 그는 생각을 충분히 숙고하여 그 생각의 가치나 적절성을 판단한 후에야 비로소 입 밖으로 내뱉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의 끊임없는 말다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생각이 퍼져나가곤 했다.

그는 언제나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스테판에 관한 이 특정 사항은 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의 어지럼증보다도 더 심했죠. 특히 그가 '빅터' 라는 이름의 가까운 친구와 대놓고 대화를 나눌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메디치는 허리에 손을 얹고 입술을 오므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스테판의 어지럼증처럼, 소피아와 막달레나는 그 아이가 친구와 나누는 뻔뻔스럽고 끊임없는 대화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도 못 들은 척 연기를 잘했죠. 하지만 여자들이 스테판을 부추겨 빅터가 마치 우리 가족인 것처럼 사적이고 자세한 대화를 나누게 할 때면, 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곧바로 스테판에게 속삭이며 빅터에게 산책을 같이 가자고 물어보라고 시켰죠.

저택 부지를 둘러보시거나, 마차를 타고 마을로 나가시거나, 심지어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 있어."

라자루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빅터의 존재가 왜 당신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메디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빅토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 빅터가 스테판의 친구라고 주장했잖아요?”

“스테판에게 빅터라는 이름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친구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스테판은 이 ‘빅터’ 외에는 다른 친구를 절대 사귀지 않으려 했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상상력으로 그 존재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교회는 스테판이 고안한 친구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까?” 라자루스가 물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거의 즉시요.” 스펙터가 확인했다. “그래서 교회 평의회는 스테판을 소환하여 선서한 자백과 완전한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그 소년에게 빅터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심문 도중 그의 실 새 없는 허는 평의회 모든 질문에 뻔뻔스럽게,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짜 친구의 존재를 부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의회 장로들을 격분시키며 ‘늙은이들은 고통받는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나약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습니다.”

"눈이 점점 나빠지고, 귀가 약해지고, 머리카락과 피부가 늙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메디치는 고개를 저었다. "스테판과 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그 녀석은 입이 너무 가벼워."

“그러나 스테판이 그들 앞에 뻘뻘 서서 빅토르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공의회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즉시 그를 엄격히 감금하여 관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후 스테판이 실을 짓는 발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공의회 원로들은 막달레나를 불러 그들의 조사 결과를 증언하게 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잠긴 막달레나는 저에게 동행을 간청하며, 마을의 존경받는 의사로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판을 제 특별한 보살핌 아래 석방해 달라고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공의회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이미 소년의 상태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였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칙령에서 스테판이 희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반 의사들의 존경받지만 제한된 능력'을 벗어나는 극단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들이 온갖 주술을 다 써봤자 소용없어.” 메디치는 투덜거렸다. “스테판의 경우, 그들은 그가 신체적으로 쇠약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지.”

서큐버스를 소유하게 됨.

“그럼 성공이란 게 뭐지— 어—”

"교회 평의회가 명확히 설명했듯이, 그것은 영적인 유혹을 통해 필멸의 남성에게 달라붙어 그의 모든 정수를 빨아들이는 여성 악령입니다. 교회는 그 여성 악령이 라미아무부스 또는 그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고, 신중한 성직자적 검토 끝에 그 악령이 스테판의 꿈에 침투하여 '빅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낸 후 그의 영혼을 유린했다는 간결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빅터?"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교회는 어떻게 그 악마의 진짜 이름, 그러니까 '라미아'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지?"

“—무부스,” 유령이 이름을 끝맺었다. “공의회는 ‘벌레의 개’ 또는 그와 비슷한 이름으로 공공연히 거론되는 한 유명 주교의 교황 기록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그들이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이 분노한 신도들을 설득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급하게 설명을 꾸며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자루스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메디치의 주장에 반박하며 말했다. "나는 '벌레의 정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읽은 적은 있습니다."

보름 스 주교가 필사한 성스러운 정경 의 일부입니다 . 혹시 그것을 말씀하시려던 건가요 ?

"교회법—주교들—별레들— 교회 공의회는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메디치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손가락을 마구 휘두르며 인정했다.

"어쨌든 저는 연금술에 정통했고, 숙련된 의사로서 성실히 일했지만, 전례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판은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반복되는 매질과 상처 때문에 그의 혈액은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엄격한 성직자 감독 하에 스테판을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간청했지만 , 공의회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저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제들과 의사들은 '머리 기름칠' 과 엄격한 '거머리 치료법' 을 처방 했습니다 .

"머리에 기름칠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라자로가 물었다.

"이것은 교회의 세 명의 임명된 사제가 귀신 들린 사람의 머리 뒷부분을 성유가 담긴 그릇에 담그는, 매우 정밀한 성직자 의식입니다. 첫 번째 사제는 기름을 바르는데, 대상자의 눈, 코, 입에 문질러 악령에 대한 모든 인식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사제는 기름 을 바르는 동안 기도문을 낭송하여 주변의 악령과 귀신이 기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세 번째 사제는 유향과 석회질의 연기를 끊임없이 불어넣어 대상자의 숨결을 축복하는데, 이 연기는 대상자의 얼굴 구멍에 정확히 불어넣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길고 복잡하여, 3일 밤낮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머리 치료법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자로가 물었다.

"거머리는 강에 사는 벌레처럼 피부를 뚫고 들어가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교회 의사들은 소년의 사타구니에 거머리를 잔뜩 붙여 독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스테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고, 사흘 뒤 그를 매장했습니다."

나사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의 상처는 등에 있지 않았다고? 어디에?"

그들이 그를 채찍질했나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소년의 시신이나 쓸쓸한 묘비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스테판의 마지막 안식처는 우리 모두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유령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허약했고, 자신만의 고립된 방식으로 특이했지만, 그는..."

그는 결코 악령에 썩인 적이 없었고, 다만 기묘하지만 진실한 마음과 정신을 가졌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철저히 경비되는 무덤에 묻혔고 , 그의 유령 친구에게 영원히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나는 스테판이 지금 천국에서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하며, 아마도 영원히 그의 친구 빅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정말 암울한 시절이었죠.” 라자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메디치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모두에게 암흑기였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이나 교회에 십일조를 쉽게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를 낼 형편이 되고 학식이 있으며 교회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빛이나 희망을 드리우려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 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부유했으니 십일조를 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라자로는 메디치 가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고통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며 물었다 .

유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가 과할 정도로 후하게 십일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지냈습니다. 교회는 특히 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부유층의 재산에서 그들이 제자리를 유지하도록 딱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이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자신들과 재정 및 교황 대리인, 그리고 충성스러운 귀족 신하들만이 부를 축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직자들을 보내기 전에 자선적인 십일조를 내고 친절한 말을 건네 면서도,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을 속으로 저주했습니다 ."

“은밀히 살펴보니, 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 사람들은 참으로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경멸하며, 그들의 처지를 마치 접촉 하는 모든 사람의 재산과 노력을 빨아먹는 나쁜 거머리 떼에 비유했습니다 . 그들은 그러한 물질적 이득을 대가로 쓸모없는 권위의 말, 값비싼 사면, 그리고 거짓된 천국의 약속만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허튼소리를 늘어놓는 대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을 기대했습니다 .

종교적,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농부 부부에게서 토끼 몇 마리와 뜯은 채소 몇 개를 몰수하든 , 영주 부부에게서 금화 한 움큼과 말 몇 마리를 빼앗든, 이들은 농부의 말과 기도, 약속 , 즉 허튼소리를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똑같이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 결국, 그들의 눈에는 영생의 약속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왕에게도 똑같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멸이라는 개념이 굶주린 배를 잠시 달래주거나, 짝 조인 지갑의 끈을 느슨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씁쓸한 진실 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마을로 달려가 약속을 써버리겠다는 희망을 품고 말로 배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심지어 나태하고 무능하며 허튼소리만 늘어놓는 교회의 사람들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남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냥한 동물, 수확한 채소, 잘 키운 말, 가문이 일궈낸 재산, 그리고 온갖 직종의 대장장이들이 흘린 땀과 노동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적한 모든 부는...

그들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의 노력을 교회에 평생 바쳐야 할 십일조의 정당한 지불금으로 주장했습니다.

“십일조라고요?” 메디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고, 곧바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라고? 이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건가?” 유령은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잠시 쓰다듬었다. 그러더니 껄껄 웃으며 계산을 소리 내어 확인했다. “내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신은 굶주림에 시달리지도 않고, 말을 타고 오가지도 않으며,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러 도시에 가지도 않지.” 메디치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라자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 이 십일조는 교회의 성직자들과 그 측근들의 기생충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것이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직자들은 마치 규율 잡힌 도둑들의 소굴처럼, 신앙심 깊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느리고 파괴적인 질병처럼,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감염. 그들의 방법은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아니며, 심지어 점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직자들은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첫째, 이는 일반인들의 마음을 타락시켜 불필요한 의심, 불안, 자기 회의의 씨앗을 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성직자들은 해당 백성들에게 정기적인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덕과 미덕을 무가치함과 죄책감이라는 약화된 감정으로 대체하여 점진적으로 타락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고 세상의 모든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의 유일한 원인과 결과가 자신들이라고 믿게 될 때, 성직자들은 그들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게 만들 정도로, 그들의 지속적인 물질적 가치에 의존하고 꾸준히 그것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파멸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직자들은

새롭게 얻은 이 가치를 이용하여 이전에는 만족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더욱 오염시켜 세속적인 이익을 더욱 증진시키려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규모 반복 감염 방식은 집단적 예속이라는 역병처럼 퍼져나가도록 고안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십일조라는 형태로 세속적인 교회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일조라고요? 하느님께 바친다고요?” 메디치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교회는 겸손도 공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소유물을 약탈하려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농부의 보잘것없는 채소 바구니를 몰수하는 것부터 지방의 말 세 마리 중 한 마리를 빼앗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괴물 같은 식욕은 결코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농부들의 채소를 굶주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적이 없으며,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적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채소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채소를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똥똥한 사제, 주교, 십일조 징수원들이 채소를 먹고는, 한 끼 식사 이상으로 남은 음식은 자기들이 키우는 살찐 돼지의 여물통에 넣어주었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굶주리고 울부짖는 아이들을 달래며, 삶은 풀 한 그릇으로 또 다른 저녁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습니다.

허브 향이 살짝 감도는.

메디치는 라자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소. 뚱뚱한 사제와 그의 돼지우리, 그리고 불쌍한 농민들도 내가 알고 있었소."

메디치는 씩 웃으며 말했다. "몰래 굶주린 가족에게 염소 세 마리와 두 아이를 위한 장난감 두 개를 주었지." 아이들과 넉넉한 동전 지갑을 건네주었고, 나는 그들에게 절대로, 특히 교회에는 절대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세 마리 염소의 뼈, 힘줄, 털 한 올도 돼지 여물통에 떨어져 뚱뚱한 신부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더 살찐 돼지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내가 성직자 재정 기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부 거래를 하여 전 재산을 몰수당할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가족은 약속을 지켜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았고, 다시는 풀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가족의 가장은 나의 아끼고 신뢰하는 하인 중 한 명이 되었고, 결국에는 나를 섬기게 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내 유해를 최종 안식처로 모시겠습니다." 메디치는 한숨을 쉬고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우리가 이 지방의 모든 농민을 보살필 수는 없었지만, 소피아와 나는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한 가정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자루스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에 영원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 메디치는 턱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사로는 웃음을 참았다. 겸손과 당황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고, 그는 "정말이지, 제 행동은 당신의 친절만큼 대담하거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예전에 수도원 지하 묘지에 살았을 때, 아버지께서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하셨고 감옥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죄수에게 제 음식을 조금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어기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음식을 다 먹고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눌 음식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말이죠. 저녁을 먹으면서, 만약 제가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굶주린 사람과 한 입도 나누지 않는다면, 음식을 냄새만 맡고 한 입도 먹지 않는 것보다 나중에 더 큰 공허함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부인할 수 없었고, 제게 주어진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무를 저버리고 몰래 그 죄수를 도왔습니다. 심지어 그를 감금에서 풀어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를 풀어주셨나요?"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미 자유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훌륭한 친구는 굶주린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가 분명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자루스,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라자로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후, 비록 제가 제 의무를 어겼지만, 염소 세 마리를 통째로 먹었을 때보다 더 배가 부른 느낌이었어요.”

메디치는 웃었다. “정말 그렇군요. 제가 알던 바로 그 느낌입니다. 저 죄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나사로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시선을 떨구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를 '그리스도 안의 가난한 사람' 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치의 웃음기는 사라지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죽어 잊혀진 수많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기리고 존경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호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칭호가 적절할 것이다.”

당신이 라자로라고 기억하는 이 사람은 영원히 복되도다. 어떤 교황이라도 부러워할 만한 칭호이지만, 감히 아무도 입지 못할 평범한 웃을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그를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메디치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며 “참으로 적절한 말이로군.” 이라고 말한 후, “비슷한 관점에서 적절히 적용해 보면,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교회가 마치 비만과 사치, 잡동사니로 가득 찬 풍요의 빨처럼 부풀어 올랐지만, 그 누구도 ‘교회의 부자’라고 자칭하며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교황청의 재정에서 부를 축적했다면, 사치스러운 생활의 원천을 잃을까 두려워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교회의 재정에서 부를 얻지 않은 채 정직하게 부를 축적했다면, 교회는 그의 지속적인 성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십일조 형태로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 있고 건강하며, 진정으로 그런 거창하고 화려한 칭호를 달 자격이 있는 부유하고 경건한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야,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말해 주겠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서서히 질식해가는 인류의 부패를 먹고 사는, 화려하게 장식된 구더기 무더기와 다를 바 없으며, 동시에 경건한 독을 끊임없이 분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죽음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를 꾸짖었다. “당신의 무례한 말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교회와 그 종들을 향해 그렇게 가혹하게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메디치의 갑작스러운 놀라움은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자신을 과시하듯 말했다. “교회 공의회 앞에 서야 합니까? 그들은 제가 참석했음에도 귀머거리, 장님처럼 행동하는데 말입니다. 성직자들이 저를 이단이나 마녀로 몰아세우고 제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까? 저는 한 줌의 살점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불이라니? 죽은 자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모진 말 때문에 지옥을 찾을 수 있을까?” 메디치는 팔을 내렸다. “노력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네.”

“당신은 쓰라린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군요.” 라자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쓰라렸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메디치는 한숨을 쉬며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 하느님께서 친히 요구하시는 것도, 요구하지도 않으시니까요." 라고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하느님은, 수많은 성직자도,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 신전도 없이 그분의 양떼와 교제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 시대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건대, 신과의 소통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팽창하는 나무 판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갑판에서 쉬고 있던 갈매기 떼는 놀라서 하늘로, 해안 쪽으로 날아올랐다. 메디치는 앞으로 나서서 라자로에게 좀 더 개인적인 말을 건넸다. "라자로, 내가 교회를 의심한다고 해서 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본래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고, 단지 유혹의 나무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스스로를 교회의 아버지라 칭하시는 교황 성하는 해와 달처럼 완전히 별개입니다. 권력과 타인의 자원을 지배하려는 타락하고 기회주의적이며 허영심 가득한 자들이 그들의 뚜렷한 형상을 하나의 조작된 숭배 행위로 결합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밀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과거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특권 덕분에 저는 그들 중 가장 사악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제가 교회에 꾸준히 아낌없이 기여한 덕분에 이 거만하고 위선적이며 기생적인 자들을, 특히 제 연금술 연구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소피아와 함께 교회 설교를 경건하게 들었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기억할 만큼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 계명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제 나사로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라 불리기를 고집하며, 그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고 주장할 만큼 오만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대리인이며, 오직 그의 교회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합당한 참회와 사죄, 그리고 주님과 재결합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메디치는 나사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다른 질문을 던졌다. "만일 허영심 많고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러한 허영심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느냐? 이 말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느냐?

라자로의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서 대답했다. "당신이 원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군요."

배의 선체에서 널빤지들이 계속해서 삐걱거렸다.

메디치는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며 말했다. "나사로야,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의 마음도 아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들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십일조와 피와 땀과 고난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음모를 꾸민다. 이들은 괴물과 같으며, 권력과 지배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만족할 줄 모르는 끔찍한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너희 자녀들의 피를 기꺼이, 그리고 틀림없이 마실 것이다. 언제나 그랬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악은 악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의 본성이다."

'선'. 진실로, 악이야말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장 열렬히 주장하는 것과 같다."

메디치는 라자로의 눈에 점점 커지는 짜증을 알아채고는 그의 거침없는 의견을 단호히 누그러뜨렸다. 그는 과학적 관찰과 조사 방법론을 종교적 신념과 과거의 경험에 접목시켜 자신의 견해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며 강의를 다듬었다.

논리적 추론. "제 예리한 기억에 따르면, 그것은 제가 스스로 짊어진 짐도 아니었고, 악한 진실을 완전히 잊지 않고서는 제 의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성경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몹시 경악했습니다. 교회는 기만적인 행태로, 천국에 갈 기회 외에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상속받거나 탐내거나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영원히 명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세속적인 부를 탐내고 상속받았습니다.

그 부를 교황청 대리인인 방대한 성직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식 있고 규율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 자신의 의무와 세심한 관찰 방식을 쉽게 저버릴 수 없었고, 동시에 교회의 악영향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가난,

그 무자비한 통치 아래 만연했던 고통과 죽음. 나는 그럴 수 없었다—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서 옳게 짐작하셨듯이, 그 때문에 원망은 제가 언제나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배가 갑자기 기울어지더니 더 가파른 각도로 쓸렸고, 선체 판자들이 해안가 돌과 흔들리는 무게 때문에 부서지고 짹짹 소리를 냈다. 라자로 스는 몸을 단단히 고정하고 유령에게 눈썹을 치켜올렸다. 새로운 정적이 감돌자 배는 다시 안정되었다. 메디치는 팔짱을 끼고 마치 배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말을 이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교황의 관행을 보여주는 또 다른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마을 광장에서 금박을 입힌 성직자 마차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차에는 온갖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지나치게 통통한 마부가 있었다. 마차는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구두 수선 가게 안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지나쳤고, 말의 특이한 무늬가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길을 건너 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전히 어떤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말을 불렀다.

말이 귀를 쫑긋 세우고 나를 발견했다. 훌륭하고 온순한 말이었다. 이름은 바를로였는데, 막달레나가 망아지였을 때 지어주었다. 바를로는 스테판의 부모님이 예전에 살았던 땅에 사는 농부 가족의 밭을 정기적으로 갈아주곤 했다. 하지만 나는 바를로가 그렇게 격렬하게 고삐를 풀려고 발버둥 칠 줄은 몰랐다. 다른 말들까지 놀라게 하고 마부를 격노하게 만들 정도였다. 마부는 채찍을 휘두르며 로마의 교황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바를로의 입에서 거품이 나올 때까지 마구 때렸다.” 메디치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아침 이후로 나는 바를로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늘 후회해 왔다. 아마도 나는 그 말을, 이미 지나간 젊고 즐거웠던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과 혼동했던 것 같다.” 유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그 암울했던 시절의 그림자 속에서 많은 선함이 사라졌지. 마치 짐승들조차 예전의 모습을 잃고 초라해진 것 같았어.”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선함이 존재하며, 암울한 날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말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구절들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메디치는 힘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나면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죽으면서 시간이 다 됐어."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인정했다. "당시 제 서재에 그 성경 사본이 한 권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을 통해 제게 전해 내려온 것이었죠. 꽤 크고 오래되고 무거웠는데, 화려한 자수와 촘촘한 제본이 돋보였습니다. 책장에는 다채로운 그림과 글귀가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역의 노르드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이 만든 단 세 권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모았습니다."

그 책은 당시 상당히 규모가 컸던 우리 가족 서재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라자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며 메디치에게 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있는데, 당신은 단 한 구절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한가한 순간이 전혀 없었어." 그의 표정이 갑자기 씩 웃으며 바뀌었다. "하지만, 비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역할을 했지."

"그곳은 어디죠?"

"맞아요. 책꽂이 맨 왼쪽 맨 끝에 놓여 있었는데, 입구 근처에 있는 성미 급하고 열정적인 이탈리아 여성의 시선과 정확히 같은 높이에 있었죠."

제 연구입니다.

“소피아?”

아니요. 그녀의 양어머니, 그러니까 그녀의 친고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래된 가문의 책은 그녀가 늘 눈여겨보던 물건이었고, 지나갈 때마다 늘 그 책에 대해 한마디씩 하곤 했죠.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지만 펼쳐보지도 않은 그 두꺼운 책은 그녀의 눈에서 불꽃을 완전히 꺼뜨렸다.

"그녀는 내 서재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나를 감시했습니다. 다가올 때는 의로운 사자 같았지만, 떠날 때는 관대한 어린 양 같았죠." 메디치는 껄껄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 말씀이 장모님의 맹렬한 열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 셈입니다."

"그녀는 그 책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전해 내려오는 경전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그 안에 담긴 글과 그림, 페이지들을 보라고 한 적은 없었잖아요?"

"아니요."

"그녀가 당신에게 책을 읽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절대 스쳐 지나가는 말로는 안 돼요."

"그녀는 단지 거기에 적힌 내용 때문에 당신이 그걸 읽었다고 짐작한 건가요?"

"네," 메디치는 웃음을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다.

라자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성경을 옮겨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녀는 성경이 닫힌 채로 놓여 있는 것을 더 필요로 했던 것 같군요."

두 사람은 폭소를 터뜨렸다.

"물론 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설득되지 않으셨죠." 스펙터는 강조했다. "두 분은 마치 밤과 낮처럼 정반대였어요. 손님들이 서재를 지나가다가 늪은이를 발견하면..."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책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늘 "저 책은 다른 아닌 의심 많은 토마스 본인의 책이란다." 라고 대답하셨죠.

"사도 토마스에게서 온 말씀인가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나 때문에 곤란할 때마다 항상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셨지, 특히 내가 어렸을 적 고집 세고 반항적이었던 시절에는 더 그랬어. 너무 자주 그렇게 부르셔서 손님들이 나를 그레고리 도련님이 아니라 토마스 도련님으로 착각할 정도였지. 가끔은 꽤 당황스러웠어. 그랬지."

유령은 한숨을 쉬며 허공을 응시했다. 수 세기 전에 지나간 은밀한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듯했다.

그는 잠시 서성거리며 생각에 잠긴 후 마침내 말을 이었다. "전직 수도원 시종으로서 수도원 필사실 전체를 이용할 수 있었던 당신은 분명 저보다 성경에 정통하시리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의 역사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공연된 방식과 다양한 역사 기록들도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은 동일한 진실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당신은 성경에 정통하시군요. 저 역시 역사, 특히 전쟁술 과 교회를 형성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영광스러운 구더기 무더기' 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처럼 , 그것도 당신이 학식 있게 공부한 교회 역사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까, 메디치 씨?"

유령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표정을 애써 감추려다 겨우 정신을 차렸다 . "글쎄, 꼭 그렇지는 않소. 하지만 교회처럼 지루하기 짝 이 없는 주제에 대해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면 , 그런 표현들이 나름대로 색깔을 더해주는 것 아니겠소?"

라자루스는 눈을 굴렸다. "당신은 오직 검은색만을 표현했군요. 검은색도 색조인가요?"

메디치는 꺾꺾 웃으며 거침없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했다. " 좋습니다. 제가 좀 과격 하게 말한 것 같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만큼 성경에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설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음에는 제 견해 중 일부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교회의 모습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라자로는 어깨를 으쓱하며 조건부로 동의했다. " 교회 에 대한 당신의 경멸이 너무 눈부시 게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

"음, 그들은 정말 여러 면에서 그랬죠."

라자로는 시선을 가늘게 뜨고 그의 말을 끊었다.

스펙터는 손가락을 허공에 치켜들고 비웃으며, 의도했던 선언을 정중하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신 을 위해서라면, 내 서신에서 벌레에 대한 언급 과 포식적인 신앙심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모두 삭제하고, 아마도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버전의 교회 역사를 부드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말이죠."

"혹시 좀 더 듣기 좋은 다른 이야기 라도 괜찮을까요?" 라자루스는 화제를 바꾸려는 듯 은근히 말했다 . "혹시, 당신의 사랑하는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라도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피아의 양부모님께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처음 청혼했던 때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 그토록 끔찍했던 사건, 그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 마치 '돈의 책 '처럼 말이죠."

나사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호기심 많은 강아지처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니엘서' 라고 요?"

메디치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소피아의 이모도 똑같이 소리쳤어요. 저에겐 꽤나 난처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꽤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죠."

"듣고 싶네요." 라자루스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다 .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마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에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걸 좋아하실 것 같 네요."

"확실합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나무 선체를 뚫고 또 한 번 굉음이 울려 퍼졌고, 갑판 아래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위에 단단히 박혀 있던 배는 마침내 바다에 굴복하고 말았다. 나무는 삐걱거리고 갈라지는 소리를 냈고, 갑판은 약간 더 기울어졌다. 두 사람은 끝없이 펼쳐진 남쪽 바다와 별들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바닷물의 짙은 내음을 실어 날랐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아래에서 철썩거리고 쿵쿵 소리를 내며 배의 선체에 거품을 쳤다. 라자루스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바다가 구름보다 더 깊고 높다고 하셨죠." 라자루스가 물었다. "그럼 별보다도 더 깊고 높은 건가요?"

“하늘 그 자체라고요? 그럴 리는 없겠죠.” 메디치가 대답했다.

"별까지 날아가 본 적 있어요?"

유령은 껄껄 웃었다. "물론 아니지. 감히 그런 위험을 무릅쓸 생각도 없어. 세상의 모든 천사들에게 발각될까 두렵거든. 저 위에는 숨을 곳이 없어." 메디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자리는 바로 여기 아래야. 지옥을 찾고, 내 소피아를 찾는 곳이지."

산 꼭대기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높고 낮은 곳까지 살살이 뒤져 보았습니다." 유령은 라자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자네가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니 이제 내 탐색은 끝났다고 믿네." 그러고는 바다를 훑듯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정말이지, 바다 밑바닥을 뒤지는 건 끔찍해. 무시무시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바다 괴물들이 영원한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헤엄치고 있지."

“바다 괴물까지도요?” 라자로가 물었다.

“특히 그렇죠.” 메디치가 단언했다. “가장 깊은 심해에 숨어 있는 거대한 괴물들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는 하얀 거인들이었는데, 그 머리에서 길고 늘어진 다리들이 많이 뻗어 나와 있었죠. 그 다리들은 너무나 길어서 가장 큰 해양 무역선의 전체 길이를 덮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없는 거대한 유령 같은 몸도 봤는데, 마치 길고 휘날리는 머리카락으로 가득 찬 거대한 수영모자처럼 보였죠. 그 머리카락은 빛을 내며 먹이를 죽였습니다. 또한 입을 크게 벌리고 긴 꼬리를 가진 이빨 없는 거대한 바다박쥐도 봤습니다. 한번은 거대한 조개들이 널려 있는 해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가장 큰 조개는 갑자기 닫히는 껍데기 안에 두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메디치는 씩씩거리며 얼굴을 찡그리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창백하고 끔찍한 머리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는 혐오감을 드러내며 몸을 떨었다.”

이어서 “— 그것들은 마치 떠다니는 머리 같았는데, 불규칙한 이빨이 줄지어 나 있었고, 커다란 눈과 벌어진 입이 그들의 존재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큰 눈과 수많은 이빨을 가진 머리들이었다. 상상해 보라, 칠흑처럼 검고 사납고 탐욕스러운, 빛나고 떠다니는 머리들로 가득 찬 해저 세계를.”

"바다에는 기괴한 머리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자루스는 메디치 가문의 기괴하고 거대한 바다 생물들에 대한 환상적인 묘사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렇게 물었다.

"글쎄, 그들은 다른 바다 괴물들만큼 끔찍하지는 않았어."

라자루스는 배의 넓은 갑판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그것들은 에덴의 보석보다 더 컸던가?"

메디치는 창백한 얼굴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손가락 사이로 약 7.5cm 정도의 간격을 두며 이렇게 말했다. "음,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불완전한 듯 보이는 모습에, 매우 불균형하고, 모든 면에서 유령 같았습니다. 저와도 비슷하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마주했을 때, 마치 지옥문 근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지옥의 문턱에 서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것들은 마치 주님의 놀라운 설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지옥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미조차도 그들과 함께라면 더 잘생겨 보일지도 모릅니다. 거미는 뚜렷한 몸통과 제대로 된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몸통도 다리도 없이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건가?" 메디치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으며 해변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동굴 귀뚜라미 같아. 크고 긴 다리가 보통 귀뚜라미치고는 너무 작은 몸을 지탱하는 것 같지. 몸의 균형이 전혀 안 잡혀 있어." 그는 다시 몸을 떨었다. "왠지 모르게 거슬리는 군."

엘조는 한때 관상학을 전공했던 유령이 신체 불균형이나 기괴한 해부학적 형상에 공포증을 앓는다는 다소 이상한 발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속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웃음을 억누르려고 입술을 오므렸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입술을 깨물고는 마치 심각하고 곤란한 듯 메디치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만약 그런 작은 머리 같은 게 당신에게 던져진다면 어떡하죠, 메디치?"

스펙터는 몸을 돌려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죽어야 할 것이다." "머리에 있는 것들?" "안 돼!" 유령이 으르렁거렸다. "누가 나한테 그걸 던졌든 간에!"

라자루스는 숨이 막혀 완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몸을 웅크린 채 균형을 잃었다. 짹! 침범! 난간의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렸고, 만약 메디치가 뒤따라오던 엘조를 재빨리 붙잡지 않았더라면 라자루스는 머리부터 바다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고스트호는 겸손해진 라자루스를 다시 배 위로 끌어올렸다.

배의 갑판.

나사로가 일어섰다. "그러나 당신은 영이시니, 그 액체가 당신을 통과하면 깨끗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메디치는 그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안하려는 것에는 조금도 우스꽝스러운 점이 보이지 않는데요."

라자루스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메디치 가문. 저는 그저—"

"네, 알아요. 그리고 그걸 재밌어하는 사람이 당신이 처음은 아니죠. 하지만, 제게 귀뚜라미를 던진 마지막 생존자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제 최장수 환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라자루스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메디치. 그리고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치는 윙크를 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자네는 바닷물로 입을 씻어야 할 줄 알았네. 하지만 자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소피아를 붙잡았을 뿐이지. 자네가 지금 나와 소피아 사이에 서 있는 건 바로 그거야."

라자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메디치는 두 손을 성직자 예복에 얹고 발뒤꿈치를 뒤로 젖히며 대답했다.

라자로는 무너진 난간 부분과 그 아래 거칠게 휘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더 단순했던 옛날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미겔, 타테우스와 함께 우물 구멍에서 수도원의 다 마신 와인 통을 행구던 다소 우스꽝스러운 순간을 특히 기억했다. 미겔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 저거 다 마셨어!"라고 외쳤다.

바다 괴물이 그를 붙잡았다. 미겔이 꺾병을 부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작은 우물 구멍 동굴 안의 모든 움푹 들어간 곳과 틈새를 속속들이 알고 있던 타테우스는 미겔을 바다 괴물로 추정되는 존재로부터 구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미겔을 죽음에서 구해내지 않은 라자로를 꾸짖었다. 라자로는 껄껄 웃었다.

그는 어리석고 장난기 넘치는 지하 묘지 동료들 때문에 영원히 창피함을 느꼈다. 그는 눈을 들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지?” 메디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자로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래전의 한 순간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예전에 세상이 실제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세상이 작다고 생각했을 때 더 즐거웠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한때 새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날 수 있다고 믿었었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메디치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사로, 새가 천국에 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그는 팔을 벌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너희는 그렇게 높이 멀리 날아가서 하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느냐?"

라자루스는 메디치의 눈을 살피고 나서 대답했다. "메디치, 당신이 괴물들이 지옥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처럼, 나도 당신만큼이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다의 모든 부분을 살살이 조사할 만큼 깊고 멀리까지 탐색했습니까?

“그들은 내 괴물이 아닙니다.” 메디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생각 모두 거의 확신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자루스를 칭찬했다. "당신 안에는 진정한 통찰력 있고 신중한 연금술사의 자질이 숨어 있군요."

"당신의 믿음과 의심의 균형을 보니, 당신도 훌륭한 수도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소." 라자로는 배 갑판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메디치도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흠어진 잔해를 넘어 선창 입구 근처의 비교적 트인 공간으로 이동했다. 라자루스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메디치는 라자루스 주위를 돌았다. 그는 라자루스가 심호흡을 하고 우아하게 고개를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라자로는 외부와 내부에서 엘조의 예리한 방향 감각으로부터 명확성과 방향성을 얻었고, 동시에 수도원 지도의 흠잡을 데 없는 기억을 그 위에 덧입혔다. 그는 몸을 돌려 눈을 뜨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남동쪽 바다 지평선. 메디치는 라자루스의 커진 동공을 발견했는데, 그 검붉은 눈동자가 라자루스의 눈에서 푸른빛을 거의 다 빼앗아간 듯했다.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항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자루스는 바다 지평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출발할까요?"

메디치는 그를 확인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북극성을 찾고는 별자리를 따라 시선을 아래로 내려갔다. 마침내 그의 시선은 라자로의 손가락과 평행을 이루었고, 멀리 떨어진 코르시카 섬을 가리키는 정확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작 토끼 한 마리 잡았을 뿐인데 감히 나를 마녀라고 몰아세우는 건가? 눈을 감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길을 찾는 거지?"

라자루스는 미소를 지으며 날개를 펼쳤다. "너만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야. 마법은 아니지만 말이지."

유령은 한숨을 쉬었다. "충분히 모호하군. 좋은 반전이군."

나사로가 물었다. "코르시카로 항해할까요?"

메디치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위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라자로 수사여, 당신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나사로는 활짝 웃으며 몸을 돌려 날개를 펼쳤다.

그들은 하나 되어 잔해를 버리고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잔해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의도적인 항로를 따라 바다로 나아갔다. 에덴의 보석은 저 멀리 사라졌고, 프랑스 땅은 시야에서 멀어졌다. 새롭게 떠오르는 달빛 아래, 거칠었던 바다 표면은 마침내 반짝이는 유리처럼 매끄러워졌다. 그들은 더욱 높이 솟아올랐고, 마침내 레온 만의 광활한 바다가 마치 노아만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온 세상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런 특징도 없는 바다 풍경과 끝없는 수평선 속에서도, 철새처럼 움직이는 엘조와 냉철하게 계산하는 스펙터는 땅과 하늘 사이를 잇는 자신들의 항로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들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서, 그 어떤 것보다 견줄 만한 존재였다.

모든 선장의 가장 주목할 만한 항해 도구들이었다. 마치 높이 날아오르는 나침반과 육분의처럼, 염분이 섞인 심연의 바다 위를 곧장 항해하는 듯했다.

라자루스와 메디치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동반자처럼 보였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노력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닥친 일을 되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전환점은 아직 그들에게, 아니 인류에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 제1권 끝 : 부활 ]



이 문학 작품은 오직 헌정 의 의미 로 창작 되었습니다 .

##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